

# 대구 아파트 공동구매 전국 첫 성사 분양가 10% 할인 받았다

## 수성구 60여가구 시공사와 공급계약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 참여자 늘 듯

공동구매를 통해 '값 내린 아파트'가 전국 처음으로 대구에 등장했다.

부동산써브 대구도시정비사업단(본부장 김영욱)은 8일 수성구 지역에서 울 들어 분양한 A 아파트 단지(전체 119가구)를 대상으로 공동 구매자들을 모집해 당초 분양가에서 1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시공사와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공동구매를 통해 계약이 성사된 가구는 단지 전체의 60% 정도인 60여 가구.

김영욱 본부장은 "공동 구매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전 신청을 받은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며 "공동 구매 일주일 만에 60% 계약을 달성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며 현재 비 인기층 일부 가구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지역 중견 업체가 시공한 A 아파트 단지는 지난 '1·11'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분양을 해 초기 계약자 모집에 실패했으며, 평당 분양가는 30평대가 790만 원, 40평형대가 930만 원이었다.

공동 구매를 통한 할인율은 층별로 7.5%~11%로 차등 적용됐는데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무이자 조건으로 변경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할인율은 12~15%에 이른다는 것이 도시정비사업단의 설명.

공동구매 계약자들은 "최근 분양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은데다 입주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

안감이 있지만 30평대를 2천만~3천만 원 할인 받을 수 있어 공동구매에 참여했다."며 "실수요자 입장에서 내집 마련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됐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동 구매 계약자와 달리 시공 업체 표정은 밝지 않다.

시공사 대표는 "지역민들에게 저렴한 아파트를 분양했다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업체로서는 몇 년간 준비해온 사업장을 나빠진 시장 환경과 금리부담 등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며 처분해야 하는 탓에 착잡할 따름"이라고 했다.

또 타 시공사들은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공동구매로 할인 아파트가 나오면 전체 분양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부동산써브 도시정비사업단은 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향후 공동 구매를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사전 설명회와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startq>) 등을 통해 관심을 보인 공동 구매 희망자가 2천여 명에 이른다."며 "초창기 공동 구매를 시작할 때는 시공사나 시행사 반응이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 공동 구매 참가 단지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